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2>



전생과 내생을 말하지 말라

전생은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물론 윤회의 가르침은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윤회의 가르침의 본의는 잊혀지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경전은 윤회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환생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얼마간 구원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윤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윤회에 대한 믿음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다. 바르게 윤회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삶을 살도록 고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미래의 삶에 옮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선 좋은 삶을 살고 올바른 일을 행하지만 한다면 윤회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다르다. 따라서 전생과 내생에 관해 궁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아활경>의 <숙명경(宿命經)>에 전생에 관

문이다.' 자기 자신이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하는 호기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는 이런 것은 가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열반을 향한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훈계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에 자신이 했던 일을 추억하며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지금 현재엔 내가 별로 볼품이 없지만 한 때는 나도 부자였고 아름다웠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려거나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나태의 심리가 있는 것이다. 붓다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도 현재 해야 할 일을 외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잡아활경>의 <나리가경>에서 붓다는 내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한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죽은 재가신도들의 내생이 궁금하여 여쭙자 붓다는 대답한다. "그대들은 그들의 내생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죽고 난 뒤의 일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으니 과거·미래 알려 말고 현재를 바로 보라

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많은 비구들이 모여 전생에 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너는 전생에 어떤 업(業)을 지었고 얼마나 솜씨가 좋았으며 무엇으로 생활을 했는가?" 이 때 세존께서는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천이(天耶)로 비구들이 논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대중들 앞으로 가서 자리를 펴고 앉아 모든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에 모든 비구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을 낱낱이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전생에 한 일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혜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범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혜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며, 열반으로 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너희 비구들은 마땅히 함께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에 도움이 되고, 법에 도움이 되며, 범행에 도움이 되고, 바른 지혜와 깨달음이며 바르게 열반으로 향하기 때

에 대해 묻는 것은 그저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며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에 즐겨 대답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무엇이 궁금한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나고 죽으니 내생이 궁금할 이유가 없다. 죽기 전 해놓은 업에 따라 태어날 것이니 본인이 본인의 내생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며, 미래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행하는 바에 달려 있다. 당신의 과거의 삶에 알고 싶으면 현재의 당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당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해 놓은 행위의 결과이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윤회 교리의 본의이다. 이런 본의를 잊어버리고 호기심 삼아 재미로 전생을 말하고 내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대해스님

(경남 함양 변조암 주지)

묘관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인근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 도저히 빠져 나올 수가 없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칠성 스님이라고 수영을 잘 하는 스님이 구해주려고 했으나 파도가 워낙 세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죽게 되었으니 화두나 놓치지 말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사하신 향곡 스님께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를 받아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2m가 넘는 파도에 휩쓸려서 60-70m 정도 밀려가는 와중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쟁겼습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

“ 계를 사다리 삼아 견성성불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한번에 뛰어오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

는 힘이 생겨나서 해엄쳐 나올 수 있었어요. 칠성 스님도 멀리 떠밀려 갔다가 다시 헤엄쳐 나와서 살았지요. 나도 살고 그 스님도 살았습니까. 화두 든다고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후에 죽을 과 화두가 연계가 되면서 상당히 힘을 받아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공부로 이끌어 준 이는 관목 스님입니다. 속가 행님인데 출가해서 정진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나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십만 번 하면 낱아 다리는 비행기도 떨어뜨린다"고 해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믿었지요. 그 말에 속아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으니 서나 누우나 그저 숨 한번 쉬면 신묘장구대다라니 한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했으니 수 십만 번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까. 그러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랬어요. 무서움이 한창 많을 나이인데도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화두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겁



"차 한잔을 놓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해스님. 공부에는 손중에 뭉뚱도 순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니다. 화두 챙기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향곡 스님께 출가하게 된 것도 관목 스님이 우리나라에 향곡 스님만 한 분이 없다고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선방과 토굴을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한 점 공부할 때는 앉아서 화두를 들다보면 숨 세 번 쉰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고 해가 떠 있었어요. 그렇게 해 온 것보다는 또 숨 세 번 쉰 것 같은데 어느새 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손중에 뭉뚱해 가듯 하면서 장좌불와(長坐不臥)도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 할 때는 잠깐 잠깐 정(定)에 들면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 것처럼 피로가 썩 가 서버려요.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억지 공부를 하면 통을 잘 못 누는다가, 피통을 찌든다가 이상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일주일 힘든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 순순하게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곧 나에게도 다가올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3년 동안 고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파국의 소나 라는 수행자가 지나칠 정도로 수행에 욕심을 부리자, 거문고 줄의 비유

를 들어 중도(中道)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중도를 지켜나 가면 머지 않아 번뇌를 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하셨죠.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억지 공부를 하면 몸만 땅가지는 것 인줄 알고 나의 근기(根機)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보금자리에서 학은 천년동안 꿈을 꾸다(月巢鶴作千年夢) 눈집을 진짜 집으로 아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愚人迷一色空) 앉아서 시방을 끊었다 해도 이마에 점 찍은 것 같으니(坐斷十方猶點額) 비밀한 곳을 일보 옮겨야 훨훨 나는 용을 볼 수 있으리(密移一步看飛龍).

사람의 몸통이는 햇빛에 자취 없이 녹아지는 눈 집과 같은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인후에 공부한 결과, 앉아서 시방세계를 다 끊어도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바위에 부딪쳐 결국 다시 떨어질 것과 같아서 올라가지 않을

육법등 (六法燈)
의정등록 제 2002-33243호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울리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채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환한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리동 290-1
전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6월 30일 177만원
서안-종남산-천수(백석산석굴)-난주(병행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후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탐사하는 최고의 일정
특선2 인도케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7월 15일 149만원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나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 10일 293만원
●일정: 라호르-택실라-에사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르-키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특선 상품담당 : 심홍훈 과장 011-749-5010
■ 티베트,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6월4일 259만원
티베트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베트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라사-포탈라궁-정체-시가체-라체-시(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6월21일 405만원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순례는 보다 완벽하게 진행하고자 일정이 하루가 늘어 25일간 진행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순례 일정과 제반 준비등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허가서,입장료,비지대,호텔,식사등 포함

'탐진치' 먼저 끊고 道를 구하라

기자가 된 대해 스님

한국 스님의 제자인 대해 스님은 함께 수행했던 스님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정좌불와를 해 온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정좌불와를 했다고 하시는데...'하고 여쭙자 "나는 정좌불와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남들이 잘 때 공부 좀 한다고 앉아 있으니가 남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말씀 끝에 스님의 좁을 방을 둘러보니, 누을 자리가 따로 없다. 앉은뱅이 책상 앞에 놓인 좌복과 높다란 책상 위에 놓인 좌복, 그리고 벽에 걸린 책꽂이와 옷걸이가 전부다. 높다란 책상 위의 좌복은 좁을이 올 때 눕추고 있다며 '가을에 감도 따가고 매실도 가져 스스로를 일컬어 '숨어사는 토굴승'이라고 말

수십년 장좌불와... 누울곳 없는 토굴서 수행

하는 대해 스님은 군대를 다녀온 후 2년 동안 월남전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으나 중학교 이후 계속된 공부 길을 따라 한국 스님의 제자가 됐다.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전국의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하던 스님은 4년 전, 이곳 합양 변조암으로 왔다. 작은 토굴에서 보리와 백구라는 개 두 마리와 살고 있는 스님은 이곳에 오자마자 손수 밭을 일궈 상추, 가지, 매실나무, 감자, 고구마, 우엉, 오미자, 가축, 영주, 해당화, 머루, 고로쇠, 대추 등을 알뜰하게 심고 가꾸어 놓았다. 수확물이 나오면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가을에 감도 따가고 매실도 가져 가라'고 하신다.

대해 스님은 불법의 고요적직한 대의를 묻는 입제 스님에게 90방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황벽 스님처럼 세 차례에 걸쳐 차를 우려내 권하시며 매번 이렇게 물었다. "차 맛이 어때?" "첫잔의 차 맛은 첫 날 30방 맛은 차 맛이고 두 번째 잔은 다음 번에 맛은 30방이야." 세 번째 잔을 따르며 "불법의 대의를 일러보아라 하는데 일러도 삼십 방이요, 못 일러도 삼십 방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고 물은 뒤 "차 한 잔을 놓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짓 스님은 차 맛을 핑계삼아 차를 마시고 쓰다 달다 라고 알고 답하는 그 눈을 연거푸 내려다 고 있었다. "차 맛이 어때?" **천미희 기자**

'~하지 말라' 는 오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방생·보시·청정행·화합·만족하라는 것

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밀한 곳을 일반인에게 훔칠 나쁜 용을 보리라 했습니다. 비밀한 곳으로 일반에 옮긴다는 의미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훔칠 나쁜 용을 볼 수 있으며 건강성불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사방세계를 즐겼다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임(保任)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 부처님께서 하신 '놓아버려라'는 법문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말일까요? 바로 십팔계(十八界)를 놓아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십팔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 있습니다. 육근의 대상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육진(六塵)인데 그 육진이 인연하여 육식(六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미촉법에 인연하여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닿고 이는 여섯 종류의 인식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근, 육진, 육식 등이 열 여덟 가지에 또 딸린 칠삼독심이 뿌리를 내리면 열여덟 독놈들이 됩니다. 그 독놈들을 막아내기 위해 율(律)을 만들어 계(戒)를 설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의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칠불통계(七佛通誡)의 말처럼 계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가 중요하지만 탐진치를 끊고 참선이

나 염불을 해서 정(定)에 들면 굳이 계를 따로 지키고 말고 할 게 없어집니다. 그것을 정공계(定共戒)라고 합니다. 정에 들면 몸가짐과 말하는 것 등이 저절로 율의에 계합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공계(道共戒)라고 하여 도를 통해서 부처님처럼 될 때는 계가 그냥 따라 오게 됩니다. 저절로 몸과 말의 허물을 여의게 되며 그때에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해도 참말이고 거짓말을 해도 참말이 됩니다. 이에 반해 중생은 아무리 참을 말해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를 사다리 삼아 차근차근 건강성불을 향해 밟고 올라가 하는데 한꺼번에 정상으로 뛰어오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계를 통해 도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탐진치가 끊어져야 비로소 소견머리가 나오는 것이니 일어나는 마음의 일렁거림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전에 명명백백한 형체 없는 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달 동안 밥은 안 먹어도 십시간 숨은 단 5분만 안 쉬어도 죽게 되지요? 그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놀이 타하니 보이는 겁니다. 자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소견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야 공부 힘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공부, 즉 보임을 해 나가야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에



작은 토굴에서 손수 밭을 일궈며 수행하는 대해 스님.

안에 놓고 다 내다보게 됩니다. 여러 불자들에게서는 언젠가 흔적 없이 스러질 몸통이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주가 멸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화두를 쟁겨나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해 보십시오. 대신심을 바탕으로 대발심, 대의심, 대분심, 대용맹심을 일으켜 발심을 설치고, 배고픈 줄을 모르고 텀비는 마음이라야 장좌불와도 순순히 되는 거고, 공부도 순순히 되는 것입니다. 순풍이 닦듯 순순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깊어지면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내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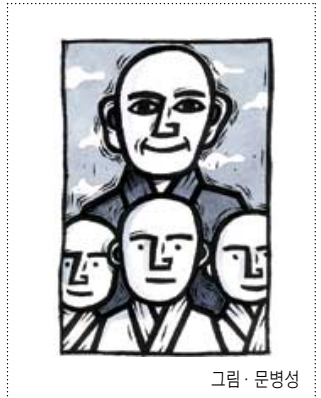
고산 스님(1)

고산 스님께서 쌍계사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이 70년대 중반인 듯싶다. 그 때만 해도 농촌지역의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활동이나 신행활동은 거의 없었다. 법회는 신년 초나, 사월 초파일에 하고 일년에 한 두 번만 짚어 가면 부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돌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쌍계사는 구례에서 가는 것이 하동보다 더 가깝다. 나는 고산 스님이 쌍계사에 오시기 전에는 광주 향림사를 다녔다. 향림사는 천운 스님이 계신 곳이다. 고산 스님과 천운 스님은 도반이기도 하지만 두 분 모두 포교 역량을 마음껏 펼쳐 포교에 큰 획을 그은 분들이기도 하다. 천운 스님은 오두막에서 오갈데 없는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는 홀로 알고 계신 듯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큰 스님과 유발상좌로 인연을 맺었다. 열 살도 되지 않은 막내 동생은 이미 큰스님의 유발상좌였다. 막내 동생이 유발상좌가 된 내력이 특이하다. 속가 모친과 막내 동생이 큰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삼배를 드리는데, 여섯 살도 채 안된 꼬마가 절을 하다말고 큰스님 품속으로 뛰어들어 가슴에 착 안기고는 서럽게 울면서 이제 집에 안가고 큰스님과 함께 절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러는 꼬마를 가만히 내려다 본 큰스님이 꼬마 하는 말이 기특하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꼬마의 원대로 해줬다. 나는 나와 전생에 지중할 인연이 있다. 하지만 절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리니 고등학교만 마치고 오면 그때 머리를 깎아주겠다는 말에 꼬마의 얼굴이 풀어지더라는 것이 나중에 모친의 얘기다. 그 바람에 큰스님과 나와의 인연도 맺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큰스님 법력의 외호를 입고 모두 부처님발음을 따르는 신행생활에 충실하며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족 중에 세 사람이나 즐거움 하게 되었다.

곁에만 있어도 마음 편안 다재다능·근면·해박

나는 중학교 때부터 쌍계사에서 방학을 보냈다.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스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아주 편했다. 난 그 때 무척이나 공경했다. 친부모로부터도 느끼지 못했던 묘한 편안함이었다. 다른 스님 곁에도 가서 앉아 보고 해도 고산 스님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스님은 여행이 아무리 고되고, 일이 많아서 늦게 주무셔도 새벽 예불은 빠뜨리지 않으신다. 몸이 편찮으셔도 그랬고 백팔배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예불 시작 전까지 좌장해계시는 모습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청정하시 그 지 없이, 나는 스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스님의 뒤에서 한참동안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스님은 절이 불사중일 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인부들과 함께 일하신다. 들어서 신신 나고 재밌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다 보면 힘들던 일도 어느새 같이 보이게 마련이다. 나무와 채소 가꾸는 일도 손수 하신다. 하루는 신도가 개입하는 병원의 안락 의식에 <금강경>을 암송하는데, 스님의 총기에 주눅이 저절로 들었다. 음식도 잘 만드시고, 집도 잘 짓고... 아무튼 나의 좁은 소견으로도 고산 큰스님은 수행자로는 한마디로 '딱' 이다. 행자생활만 7년을 하시면서 외워야 할 것들은 그때 모조리 다 외우고, 스님으로 배워야 할 것도 배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무척 써는 시범을 보이는데, 채공보살이 저절로 주눅이 들 정도다. 참으로 다재다능하시다. 그러다보니 스님은 상좌가 곱뜨거나 푹바르지 못하면 불효행을 내리신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그림·문병성

도심포교를 해나가셨고, 고산 스님은 해박한 교학과 근면은 바탕으로 부처님발음을 실천으로 옮기셨다. 고산 스님이 쌍계사로 오신 이후부터는 큰스님을 모시고 여법한 법회를 볼 수 있으니 구례지역의 불자들이 쌍계사로 몰리게 되었다. 산골이나 농촌의 불자들은 쌍계사 보살계 법회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큰 법회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스님과 함께하는 발우공양과 금당에서의 철야정진 등은 신심을 크게 들우는 계기가 되었다. 시골의 불자들에게 고산 스님의 존재는 대단한 상생작용을 일으켰다. 구례에 쌍계사 신도회가 조직되었고 회장소임을 나의 속가 모친이 맡게 되었다. 당시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 정릉 불국사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재수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스님과 나의 모친이 이야기 도중에 내 문제가 거론되어 나는 영문도 모르고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삼배를 드리고 나자 스님께서 "너, 내 상좌 해 볼 생각 없느냐?" 하셨다. 내가 기죽은 소리로 "스님, 저는 대학을 가려고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답했다. 그러나 스님은 내가 불국사에서 즐거하기 위해서 있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이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증과 암 발생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폐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연액 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 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음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파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연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임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2개월 과정 ※수시 접수
 ▶장 의: 수요일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일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김철우 박사
 ▶장 소: 본 연수원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F)

동덕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상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과외야(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범패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페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할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레슨·눈높이 교육
동덕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51)890-1947~8 FAX: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du.ac.kr E-mail:educate@dongdu.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011-342-8215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약 3Kg
 - 저온: 20~30Cm
 - 원산지: 태국
 ※ 태국에서 영아 40C 금방 직송하여 냉장건조로 보관중
 - 가격: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맥외점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불자기행 합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